

# 은행 대출 빚장 풀었지만... 실수요자, 강화된 DSR에 발목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5.8% 증가  
차주별 대출 가능 한도 대폭 줄어  
기준금리 인상, 실수요자에 부담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재개를 시작하면서 영업점에 대출을 받기 위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뉴스시스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은행들의 대출도 재개됐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대출 총량 한도 등이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의 부담과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021년 12월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 529억원으로 2020년 12월(670조 1539억원) 대비 5.80% (38조 899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인 5~6%에 근접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목표 증가율은 넘기지 않았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일시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해 실수요자가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일부 상품 취급에서 배제했던 우대금리를 다시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최대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출 재개와 우대금리를 통해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지만 실수요자 대출은 지난해보다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의 속도치 등을 종합하면 올해 대출 공급량은 최대 97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13조원이나 낮은 수치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올해 가계대출 총량(4~5%)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은행들의 대출 여력도 줄어들게 된 것. 은행별 총량 범위는 KB국민·신한은행은 4~5%대, 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4%대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달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받은 가계대출이 총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더 강화돼 1억원 이상을 넘길 수 없어 차주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기준금리 인상도 실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도 인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1.0%에서 1.25%로 0.25%p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리인상을) 배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신년사에서 “새해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금리인상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올해 대출전락을 세밀하게 짜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올해 은행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 중·저신용자 대출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신용평가점수(KC B) 820점 이하 중·저신용자들은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는 3월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1~2월에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이 다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대출을 받는 것이 바뀐 정책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금리상승기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금리간 갭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금소법 여파에 보험사 TM 보험료 ‘뚝’

생보사, TM채널 초회보험료 27% ↓  
판매원칙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국내 주요 생·손보 TM채널 초회보험료〉

보험사	초회보험료
라이나생명	117억4900만원
AIA생명	97억5800만원
신한라이프	87억5200만원
동양생명	36억1200만원
현대해상	1조1858억1500만원
DB손보	1조1637억7700만원

지난 3분기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TM) 채널 초회보험료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소비자보호법 강화 흐름에 따라 보험사들이 TM채널 비중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생보사 21곳의 TM채널 누적 초회보험료는 408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급감했다.

같은 기간 TM채널을 통해 가장 많은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인 생보사는 라이나생명이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3분기 117억4900만원의 초회보험료를 달성했

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의 경우도 전년 동기 124억4400만원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AIA생명 97억5800만원 ▲신한라이프 87억5200만원 ▲동

양생명 36억1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손보사 10곳의 TM채널 초회보험료도 지난 3분기 4조 5303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기 4조 7279억원을 거둬들였던 것과 비교하면 4%가량 줄어든 것이다.

손보사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현대해상이 1조1858억1500만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했다. DB손보는 1조1637억7700만원의 초회보험료를 달성했다.

현대해상과 DB손보도 전년 동기와 대비해 각각 4.6%,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TM채널의 비중이 줄고 있는 데는 최근 금소법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험사들

이 의도적으로 TM채널 비중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소법은 작년 3월 시행 이후 9월 말 계도기간이 끝난 뒤 업계에 공식적으로 적용돼왔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사는 ▲적합성 확인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금융사는 상품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자칫하면 금융상품 판매도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점도 TM채널 영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하나FX 트레이딩 시스템’ 전 과정 실시간 거래 개편

하나은행이 비대면 외환거래를 위해 ‘하나FX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FX 트레이딩 시스템’은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통화 없이 손님이 비대면으로 실시간 환율을 모니터링하며 직접 외국환 매매(FX)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외환거래 플랫폼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개편으로 ▲시스템 직접접속(API)을 통한 호가 제시 → ▲손님 주문 체결 → ▲은행 간 시장에서 오토헤지(Auto Hedge)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신사업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정형화된 비대면 플랫폼 거래를 넘어 API를 통해 다양한 신사업으로의 확장성도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비철금융 전문업체의 이커머스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API를 통해 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현물환 및 선물환 거래를 자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FX시장을 선도해온 하나은행은 올 해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24시간 실시간 환율 거래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하나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하나FX 트레이딩 시스템’ 글로벌 버전 개발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인카금융서비스, 코스닥 이전상장 추진

24일~25일 양일간 수요예측

인생의 카운슬러 인카금융서비스가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

인카금융서비스는 10일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인카금융서비스는 여러 보험사들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더 나아가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기업형보험대리점(GA)이다.

국내 최초 ▲모바일 가격 시스템 ▲실시간자동차 사고자동정보시스템 ▲긴급구난서비스 ▲TRM(손·생보통합보장 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했고, IT와

보험의 융합으로 업계 처음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2019년 자회사에 인을 설립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예인은 보험종합 컨설팅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고객에게 차세대 인공지능(AI) 챗봇, 영업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금융·보험플랫폼이다.

현재 다이렉트 보험료 비교 및 보험금 청구 등의 기능을 서비스 중이며, 추후 AI 기반 보험상품 추천, 보장분석 등의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비교·분석하고 구매를 원할 경우 오프라인 설계사와 연계해 판매로 이어지는 고객 최적화 솔루션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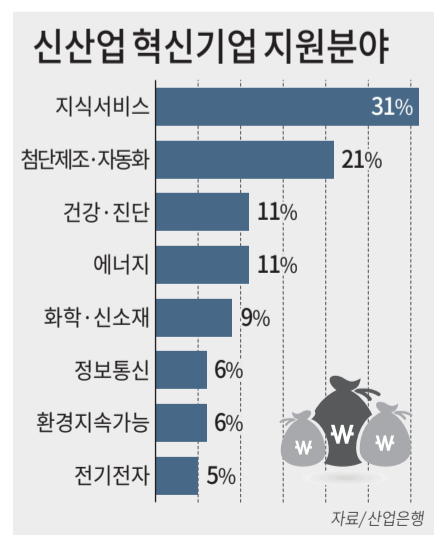
## 산업은행 지난해 신산업 혁신기업에 2조 지원

누적 186건... 4조4000억

산업은행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혁신기업에 지난해 연간 100건 2조 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2018년 8월부터 재무 열위 등으로 일반 심사로는 금융지원이 곤란한 신산업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분석하는 ‘신산업 혁신기업 심사체계’를 도입해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186건 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국내 영업점 등에서 혁신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해 1월 신산업 전담 심사부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여신심사를 지속한 결과이다. 특히 디지털·그린 분야의 혁신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및 투자자 복합금융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왔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지식서비스(플랫폼, 컨텐츠 등), 첨단제조·자동차(수소·전기차, 우주항공 등), 에너지·환경이다. /이승용 기자